



보성군, '아시아 농산품 박람회' 참가

보성군은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콩 아시아 농산품 박람회'에 참가하며 우수 농특산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사드문제로 침체된 중국, 동남아 수출시장의 불파구를 찾기 위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자체는 40여개국, 2만5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홍콩 아시아 농산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세부계획 등을 협의했다.

군은 무설탕 채류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도담과 녹차식용유 등 녹차연관제품 제조업체인 (주)녹차인과 함께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부스 운영, 성과 공유 간담회,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B2B 수출 협약 등을 진행했다.

특히, 무설탕 녹차잼과 녹차식용유는 박람회를 찾는 현지인과 바이

홍콩 컨벤션센터서 개최…도담·녹차인 참여

수출시장 교두보 마련·농특산물 홍보 총력



어의 입맛을 사로잡아 25개사와 200

불의 상품 구매계약이 성사되는 성

과를 거뒀다.

또한, 홍콩총영사관, 홍콩한인회, 코트리 홍콩지사장 등 현지 관계자 및 경남무역 등과 간담회를 열어 홍콩시장과 수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전방 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주)도담 정 대표는 "국제적으로 개최한 홍콩 아시아 농산품 박람회 참여로 홍콩 내수 시장은 물론 중국 중부여 거점시장의 교두보로 삼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확대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과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의 9개 시군이 모여 남해안경제권 거점 형성과 영호남 상호발전을 위해 지난 2011년 창립한 자체는 공동협력기구로 매년 다양한 학술 연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앞장

농가소득 증대 위한 농업서비스 대폭 확대 나서

고흥군은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종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연중 사용기간은 짧지만 구입부담이 큰 고가 농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구입부담 경감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고흥군은 농산물 기공장업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종합기공관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향토음식 만들기, 퓨전 떡 제작사 과정 등 총 5과정 40회 918명의 농업인 교육생을 배출함에 따라 농촌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전 5000 프로젝트' 달

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지역 농업리더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식량지원과 신소재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의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곤충별 표준사육기술을 정립하여 보급하고, 노동력 절감 및 자동 환경 조절이 가능한 한반복합환경 재어시스템을 도입하여 ICT 곤충산업 기반을 구축하였다.

현재 이열대과수를 시험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연구단지에 올해 7천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견학을 다녀가 이열대 과수가 고흥군의 떠오르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더 많은 불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신동진·새일미 선정

신안군은 지난 1일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심의회를 갖고 소비자가 선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 신동진, 새일미 2개 품종을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역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 관계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단체대표, 쌀 생산자 단체대표,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해 13개 읍면 사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쟁력과 생산여건 등을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은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가 인정하는 고품질 품종 육성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의 품질향상과 쌀 적정 생산을 위해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 확장된 새 누리벼와 운광벼를 제외시켰다.

군 관계자는 "선정품종에 대한 원활한 종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품종별 특성과 재배 유의사항을 농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2018년산 신안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총력

포획구제단 운영

영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렵협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 11월 초까지 처리한 유해야

생동물 수량은 1,172마리(멧돼지 297, 고라니 875)에 이르며 특히,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기간인 8. 1부터 10. 22까지 82일 동안 642마리(멧돼지 37, 고라니 605)를 포획하여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을 피해를 최소화 한 포획구제단에 보상금으로 1,432만 원을 지급하였다.

10월,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주

진하여 낙월면 송이도에서 멧돼지 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덜어 주었다. 특히, 금번 포획 활동은 경찰서 종기 안전 담당자의 동행으로 종기 안전사고 예방에 민전을 기울여 진행되었으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 표창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결실



장성군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지표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높이 평가해 장성군을 건강 관리 우수 자체로 인정했다.

장성군은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 기관 표창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장성군을 포함해 전국 보건소가 제출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에 대한 실제 을 평가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률, 조기발견율, 치료율을 교육실적, 홍보사업 5개 지표를 정량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친 결과 장성군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성군은 주민 참여를 통한 내 협약 내 협약 바탕'이라는 이름의

레드서클(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의 심벌) 캠페인을 우수 사례로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군민 건강강좌를 병의원과 연계한 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적극적인 주민건강 개선 사업은 주민 건강지표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의해 실시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성군의 건강통계 지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기업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개강

21명 참여…교육 후 취업알선과 사후관리까지 제공

함평군은 4일 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실무 전문가과정 직업교육 훈련 개강식을 개최했다.

전남 동행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함평군과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교육훈련은 이날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진행된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21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직장인 예절, 전산 기초, 기업 회계실무, 생산·품질관리 등의 교육을 받는다.

수료지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은 대학 졸업예정자에서부터 70대에 이르는 신청자들의 교육과

정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감안해 당초 18명 계획이었던 교육 인원을 21명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

교육생들은 "군에서 귀중한 직업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신만큼 교육 과정을 끝까지 수료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에도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며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군에서는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참여자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워 놀랐다"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